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연중 제11주일

2024년 6월 16일 / 제642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 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홍순미 제1독서 석근수 제2독서 한수현 / 입당 76 봉헌 213, 510 성체 183, 153 파견 509  
Narrator Hawlan Ng 1<sup>st</sup> Reader Rolly Bantugan 2<sup>nd</sup> Reader Theo Lee

입당 송 | 시편 27(26),7,9 참조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 구원의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제1독서 | 예제 17,22-24

화답 송 | 시편 92(91),2-3,13-14,15-16(◎ 2ㄱ 참조)

-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으심을 널리 알리리라. ◎

제2독서 | 2코린 5,6-10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음 | 마르 4,26-34

영성체송 | 시편 27(26),4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06월 16일	주일학교 NO	Fr. Bong
06월 23일	주일학교 NO	Fr. Peter
06월 30일	주일학교 NO	Fr. Gerald
07월 07일	주일학교 NO	Fr. Gerald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경희 에우세비아, 이동식 토마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마르코 복음서 4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먼저 4,3-8에서 예수님은 길,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의 의미를 잘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씨가 뜻하는 바가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결실을 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오늘의 복음인 4,26-34에는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4,26-29의 비유는 너무도 상식적입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수확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상식적인 내용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 듣게 되자 새삼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 비유에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담겨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뒤따르는 4,31-32은 작은 겨자씨가 땅(!)에 뿌려지면 어떤 풀보다도 커진다는 비유를 전합니다. 이 역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담고 있는 비유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씨가 땅을 만나며 일어나는 생명의 사건을 신비롭게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선포된 하느님 나라를 알아보고 또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성부의 창조 질서를 묵상하며 성자가 전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깨달아 갑니다.

창세기 1,11에서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은 푸른잔을 돌게 하여라.” 그리고 1,24에서 말씀하십니다.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창세기의 저자는 하느님이 땅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주셨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3장에서 인간의 범죄

로 인해 땅은 저주받고, 7장에서 땅은 물로 뒤덮입니다. 땅이 더 이상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의 창조 사업은 계속됩니다. 12장에서 하느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백성이, 나아가 당신께서 창조한 온 세상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훼손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한 생태적 회개와 전환에 대해 말합니다. 회칙은 생태계 파괴와 착취가 우리를 하느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선포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모든 피조물과 친교를 나눌 것을 요청합니다. 2023년 10월에 <찬미받으소서>의 후속 문헌인 <하느님을 찬미하여라>가 나왔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기 위해 일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 사제평생교육원

<p><b>김수정 REALTOR®</b>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b>대 건 한 의 원</b>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관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b>STEVE G KIM DDS</b> Family &amp;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 <b>STAR태권도</b> STAR TAEKWONDO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p> <b>N² ART &amp; DESIGN</b>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b>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b> <b>탐탁 부동산</b>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b>미술교실</b> 전통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 전례와 미사의 영성<sup>20</sup> - 미사의 영성: 과거가 의미가 하는 것(독서)

글/ 김혜종 요한세례자 신부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든지, 또는 억울한 오해를 받아 계속 그 일로 속상함을 느낀다든지... 이렇게 지난 삶 속에는 우리가 잊고 싶은 과거의 모습이 하나쯤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과거는 때때로 내 삶에 멍에로 다가와 나의 오늘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 '그때는 왜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지난 시간의 아픔과 상처는 오늘의 내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며 나의 오늘을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잊고 싶은 과거가 항상 내 삶의 짐이 되기만 하는 걸까요? 만약 상처 입은 과거가 나의 오늘을 지배하면, 그때 그 과거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통해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통해 과거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과거는 나의 오늘을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사 독서 때 듣게 되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이야기를 전해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지난 시간 속에 주어졌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오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속에서 우리의 절망을 보고, 그들의 눈물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절망과 눈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통한 희망과 사랑 또한 봅니다. 신앙인이 과거 안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단지 지난 시간 속에 상처받았던 아픔의 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통해 아픔 속에서도 용서를 발견하며, 눈물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참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 과거의 이야기가 우리의 오늘에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미사 독서를 통해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은 과거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항상 현재라는 시간과 공존을 통해 신앙인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열어 보여 줍니다. 이 말씀은 현존하는 하느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기도 하며, 하느님 구원 업적의 기념과 선포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오늘 안에서 믿음과 희망을 낳고 기르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힘을 얻습니다. 그러하기에 과거에 그냥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그 과거를 통해 새로운 오늘을 살아갈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진정 그 말씀이 나의 오늘 속에 반짝이며 빛날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초대 속에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p>CPA 조미정 (카타리나) <b>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b>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드립니다 <b>HANLEES AUTO GROUP</b>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b>SUE CHO</b> CELL: 530-220-2848</p>	<p><b>PARK CHIROPRACTIC</b>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b>HARMONY ACUPUNCTURE</b>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amp;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b>Elizabeth Jihyun Kim, DDS, MS</b>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b>COMPASS REALTOR® 부동산</b>  <b>AIDEN KIM 에이튼 킴</b> (니콜라오)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TIM MCGUIRE TEAM</p>
<p><b>West Dublin PETSMART</b> <b>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b>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b>James Golf Class</b>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 </p>	<p><b>광고를 모집합니다.</b>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925-871-9746</p>



6월 주요 전례 일정

- 6월 16일(주일): 수녀님 송별 미사
- 6월 18일(화), 20일(목), 21일(금): 평일 미사 없음 (본당 신부 휴가)

권영랑 마리크리스티나 수녀님 송별 미사

- 일시·장소: 6월 16일(주일), 오전 9시 30분·대성당
- 마리크리스티나 수녀님께서 5년간의 북가주 가톨릭성서 모임 소임을 마치고 새로운 소임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마리쥬세핀 수녀님은 남가주로 자리를 옮겨 가톨릭성서모임 소임과 신학대학원 공부를 병행하시게 되었습니다.
- 공동체에 보내주신 수녀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수녀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트라이밸리 재속 프란치스코회 6월 월례 모임

- 일시·장소: 6월 23일(주일), 오후 1시·Room A
- 문의: 유인숙 요한나(925-708-8510)

2024-25 주일학교 등록 안내

- 6월16일(주일)부터 주일학교 등록을 받습니다.
- 장소: 교중미사 후 로비 테이블
- 신청서 링크: [www.tvkcc.org/sundayschool202425](http://www.tvkcc.org/sundayschool202425)
- 문의: 성호승 어거스틴(sundayschool@tvkcc.org)

2024 Christus North Retreat

- 일시: 6월 28일(금) - 30일(주일)
- 장소: Vallombrosa Retreat Center  
250 Oak Grove Ave, Menlo Park, CA 94025
- 전예윤 마리쥬세핀 수녀님과 전지윤 신부님이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피정입니다. 우리 본당의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 <https://www.christusretreat.org/>

주일학교 교리교사 및 봉사자 모집

- 2024-25학년도 주일학교를 위해 봉사할 교리교사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자격: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모든 성인 신자 (한국어·영어 무관)
-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자녀들 신앙 교육에 힘이 됩니다. 관심과 지원,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성호승 어거스틴(sundayschool@tvkcc.org)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510	\$338	\$3500	\$190	\$185	\$5723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윤숙(5,6), 김지용(5), 김형근(1-6), 배성준(6), 신계완(1-6), 오택만(5), 이희선(5,6), 최교운(1-6), 최원숙(5), 홍상민(3-7)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윤숙(5,6), 신계완(1-6), 이희선(5,6), 최교운(1-6), 최원숙(5)

Bishop's Appeal

김윤숙(5,6), 신계완(1-6), 이희선(5,6), 최교운(1-6), 최원숙(5)

성전봉헌금 두신

간식 봉헌 박일신 바실리오·박선자 세실리아  
조원정 패트릭·송경혜 아녜스

6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조국을 떠나는 이주민들

For Those Fleeing Their Own Countries

전쟁이나 기아를 피하여 위험과 폭력이 난무하는 여정에 내몰린 이주민들이 도착 국가에서 환대받고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 기도합니다.

Let us pray that migrants fleeing from war or hunger, forced to undertake journeys fraught with danger and violence, may find welcome and new living opportunities in their host countries.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해성사 후 나오실 때  
고해소 문을 살짝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